

“ 긴 투병끝에 찾은 행복 ”

글 ◻ 최성호

저는 올해 우리나라로 34세의 건강한 남자입니다. 결핵에 걸렸었다는 점만 빼면…… 그것도 두 번의 재발로 약 10년간, 약을 먹은 기간만 4년 6개월에 달하는…….

1987년 태풍 셀마가 남해안을 강타하던 해에 중학생이던 나는 급성폐렴으로 통영 기독교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조치를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은 통영에서는 힘들 것 같으니 더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강력히 권고하셨고 지금의 내 나이 정도였던 당시 어머니는 14세의 철부지를 살리기 위해 마산 파티마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약 한 달간 폐렴치료를 받은 후 방학때가 되어서야 퇴원을 하였고 그 후로 한 번 통원치료를 받았고 병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 가을부터 감기기운으로 자주 앓아누워야 했고 항상 미열에 시달려 학교 양호실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간염이 아닌지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말씀하셨고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에서야 통영적십자병원에서 x-ray검사와 객담검사를 통해 ‘속립성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한 달에 한 번씩 학교를 소퇴하고 병원에 정기검진과 약을 타러 다녔습니다. 당시에 복용한 약이 무엇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1차항결핵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학교 도서관에 「보건세계」라는 대한결핵협회 발간 책자가 있어 물

그럴 때면 혼자 화장실에서 살아야 한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혼자서 많이도 울었지요.
자고 나면 침대 매트리스는 물론이고 그 밑의 나무판자에까지
땀이 배일 정도로 식은땀에 시달렸고
그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약국에서 독하게 감기약을 지어서 먹고는 하였지요.

래 가져와서 혼자 집에서 입기도 많이 했지요.

아침식전에 복용하는 약의 갯수가 14가지 정도 되어 항상 속이 쓰렸고 오줌이 피빛으로 나와서 소변 볼 때도 대변 볼 때처럼 문을 잠그고 누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한두 분만 아는 사실이었기에 소변검사 등을 할 때면 항상 정밀검사를 받으면서 제 상황을 말씀드려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18개월의 꾸준한 약물치료 후 담당 의사선생님의 완치판정과 함께 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때문에 인문계 고교의 진학을 포기하고 부산 해운대의 국립 기계공고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선생님은 부산 해운대의 맑은 공기와 대학입시의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우울한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상 실습위주의 수업이 많아 피로는 계속 누적되어 갔고, 고향인 거제를 떠나 부산의 학교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해야만 했던 나는 또 다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당시 키 175에 몸무게 56kg 정도밖에 유지를 못했지요. 한 달에 한 번 꼴로 감기몸살에 시달렸고 그럴 때면 폐와 기관지가 부은 듯한 아픔과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침과 고름같은 객담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면 혼자 화장실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많이도 울었지요. 자고 나면 침대 매트리스는 물론이고 그 밑의 나무판자에까지 땀이 배일 정도로 식은땀에 시달렸고 그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약국에서 독하게 감기약을 지어서 먹곤 했습니다.

고3 초여름경 점심식사 후 실습실에 올라가는데 유난히 힘이 들더니 갑자기 기침이 나왔고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오더군요. 바닥에 뺨어보니 걸죽한 피덩어리였습니다. 결핵을 앓긴



했어도 각혈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해운대의 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고 결핵이 재발했다는 판단하에 다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 의원에서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원치료하고 약만 타가는 방법으로. 그런데 이번엔 약의 양도 틀리고 오줌이 빨간색으로 나오지는 않더군요. 약의 종류는 비슷해 보였는데 말입니다.

결핵의 재발로 인해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최고의 직장이던 삼성중공업에 취업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저는 진로를 취업에서 대학진학으로 급수정해 학력고사를 치러 경북에 있는 국립대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저의 2차 결핵치료도 20세 대학 1학년 여름에서야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가정형편상의 이유로 적성과는 상관없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결핵이란 이유로 대기업 취업이 힘들어 임시방편으로 들어간 공대 생활은 마치 지옥같았습니다. 탈출구로 선택한 곳이 군대였고 해병대엔 자원입대했지만 이 놈의 결핵은 이번에도 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귀가조치된 후 재신검을 두 번 요청했지만 비활동성결핵이라며 면제를 시켜주지도 않고 3개월 후 육군으로 입대시켜 버리더군요. 추석연휴 다음날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대하여 자대 배치 후 훈련 중에 이 놈의 결핵이 또 괴롭혔습니다. 또다시 재발……. 열이 38, 39도까지 오르고 가슴속에선 가래가 그르렁거리고, 고름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객담이 나오고 며칠밤 잠을 설쳤지요. 당시 불침번 서던 동료들이 저의 상태를 살피고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내곤 했습니다.

당시 등촌동에 있던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호흡기전 문병원 내 결핵실에 격리입원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정말 전 군의 결핵환자들, 그 중에서도 위중한 분들이 모두 모인 곳이었습니다.

결핵으로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자신도 결핵환자가 된 군인, 결핵에 걸린 부하를 자기 방에서 지내게 하다가 결핵에 걸린 분. 이곳에서야 저는 결핵이 어떤 병인지 정말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결핵약이 INH, RFP, EMB, PZA이라고 칭하는 아이나, 리팜피신, 에탐부톨, 피라지나미이드라는 것과 주사약으로 스트렙토마이신이란 것이 있고 이놈을 맞고 나면 달걀 크기같은 몽우리가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국군통합병원에서 약 4개월 동안 치료받은 후 의가사제대하여 국립마산병원에서 1년 6개월간 통원치료 후 완치판정을 받았던 그 때가 1996년입니다.

그 후 결핵이 재발한 적은 없지만 객지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중 두 번의 폐렴으로 입원을 했고, 취업준비 중에도 폐렴으로 한 번 입원, 직장에 다니던 3년 전에도 폐렴으로 또 한 번 입원을 했습니다. 결핵의 후유증으로 독감에 걸리고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폐렴으로 이어져서 요즘도 항상 건강에 주의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중인 환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약을 절대 거르지 마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주관적인 판단하게 약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결핵전문이나 보건의 등에서 의사선생님의 최종 완치 판단하에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약의 부작용인지 모르지만 약 복용중에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변합니다. 그럴 수록 정말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없이 웃을 수 있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리고 너무 실내에서만 지내지 말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체력도 기르세요.

저는 현재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법원공무원)도 다니고, 결혼도 했고, 귀여운 두 명의 아이도 있습니다. 결핵으로 모든 것이 틀어져버렸다고 원망하던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조금만 더 자신을 믿고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

결핵의 재발로 당시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최고의 직장이던 삼성중공업에 취업하는 것이 어렵게되자 저는 진로를 취업에서 대학진학으로 급수정하였고 학력고사를 치러 경북에 있는 국립대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저의 2차 결핵치료도 20세 대학 1학년 여름에서야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